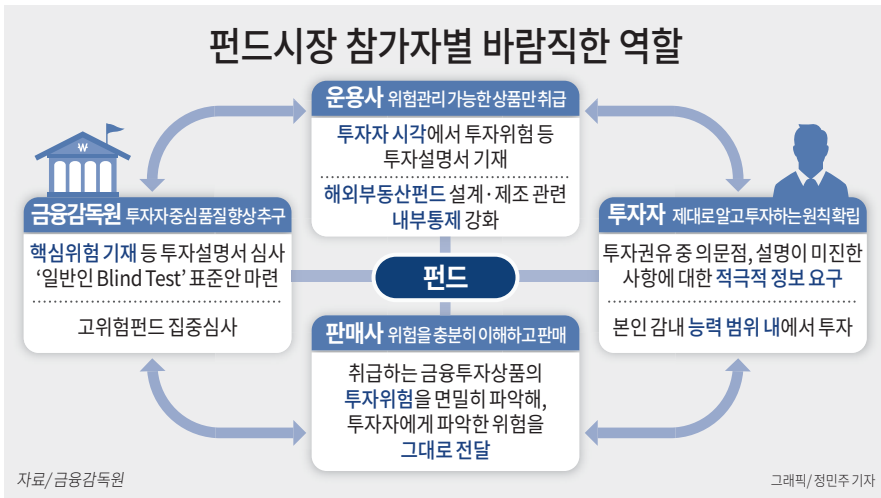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재편…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금감원, 소비자보호 토론회

고위험 상품설계 기준 전면 손질
사전예방 중심 소비자보호 체계
부동산펀드·ELS 구조적 결함 점검
설계·판매 단계 정보비대칭 해소
넛지형 설명방식 통한 이해도 개선

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펀드와 홍콩 H지수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부위원회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토론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의 설계 기준과 설명 방식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향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두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학계·시민단체·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같은 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광고·수수료 공시 기준을 강화한다고 예고하며 금융·디지털자산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반복된 부동산펀드·ELS 피해를 “개별 영업점 문제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

했다. 그는 “설계 단계에서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판매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면서 피해가 누적됐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하다. 감독의 무게중심을 사후구제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사후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ELS의 대규모 피해를 더는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자 보호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발표에서는 해외부동산펀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위험요소의 축소·누락, 투자성향 왜곡, 판매·설계 단계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점이 짚어졌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사전에 검증·기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전반의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사태의 핵심은 판매뿐 아니라 설계 단계의 위험 반영 방식”이라며 ▲설계 단계에서 위험 인식·평가·측정 체계 강화 ▲준

법·리스크부서의 독립 설계 검증 ▲소비자 이해를 전제로 한 핵심위험 기재 표준화 ▲운용사·판매사 간 위험 인수인계 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행동경제학 기반 ‘넛지형 설명 방식’이 소개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정보 배열과 제시 방식만 바뀌어도 소비자의 판단이 달라진다”며 손익 도표, 비교표, 위험 우선 노출 방식의 시범사업 결과를 설명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위험 인지가 커지고 상품 선택이 분산되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금감원은 이 실험 결과를 향후 설명 체계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위험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설계·판매·설명 전 과정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늘 제기된 의견을 감독정책과 제도 개선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IMA 첫 인가

(종합투자계좌)

‘한국판 골드만삭스’ 시동

레버리지300% 운용전략 주목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투자드라이브
한국투자증권, PF·인수금융 확대 속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받으면서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탄생함에 따라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 사슬’을 넓히려는 정부 구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자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신청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두 회사는 IMA 사업을 공식 시작할 수 있다.

IMA 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핵심 금융 기조로 추진하는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IMA 사업자는 조달한 고객 예탁금의 최대 25%까지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부문에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해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혁신·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시장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 사실상 ‘2파전’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과 한국투자금융그룹은 국내 자본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맞수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김남주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고려대 선후배 사이로 한국투자증권 전신인 옛 동원증권에서 함께 근무했다.

실적이나 자기자본 측면에선 두 증권사 모두 부족함이 없던 평가다.

다만 강점과 전략은 미묘하게 갈린다.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말 기준 별도 자기자본이 10조4000억원, 발행어음 조달 규모는 8조3000억원으로 아직 한도 여력이 남아 있다. IMA까지 더해 300% 레버리지를 적용하면 최대 22조9000억

원 규모의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지분투자, 프리 IPO, 해외 대체투자 등에서 쌓아온 딜 소싱 역량과, 모험자본 카테고리 내 A등급 이하 크레딧·강소기업 VC·신기사 조합 투자 경험을 IMA에 실어 ‘글로벌·모험형 IMA’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 경우는 자기자본은 10조5000억원대지만 발행어음 조달액이 이미 18조7000억원으로 기존 한도(200%)를 거의 소진했다. IMA 인가는 사실상 ‘두 번째 엔진’을 달아준 셈이다. 향후 12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이 생기면서, 그간 강점을 보여온 부동산 PF·인수금융·구조화금융 영역과의 결합을 통해 보다 보다 공세적인 IB 전략을 펼 수 있다.

/허정윤 기자

KB증권, 디지털 자산관리 10조 돌파

AI·UX 혁신으로 고객경험 강화
비대면 중심 자산관리 고도화

KB증권의 디지털 자산관리(WM) 자산이 10조원을 돌파했다.

KB증권은 자사의 디지털 자산관리(WM) 서비스 자산 규모가 2022년 말 3조4000억원에서 올해 하반기 10조원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3년 만에 약 3배 성장한 수치다.

KB증권은 디지털 마케팅 전담조직 신설 이후, 디지털 채널 중심의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앞서 2023년 디지털사업그룹 내 비대면 상품 마케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분석, 상품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모바일 앱 사용자경험(UX)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KB증권은 투자 콘텐츠 브랜드 ‘오늘의 콧’을 통해 실시간 시장 분석과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의 콧’은 주식, 채권, 부동산,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누적 조회수 1000만회를 돌파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KB증권은 이번 디지털 WM자산 10조원 돌파를 계기로 KB증권의 대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able’을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고객의 자산 성장과 장기적 투자 여정을 지원하는 ‘투자 동반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내년 2월 예정된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와 실시간 투자 정보 제공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흥구 KB증권 대표이사는 “디지털 자산관리는 쉽고 친근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고객 자산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와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와 혁신을 통해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경험을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거래 환경 개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KB증권은 모바일 앱 내 금융상품 가입, 자산 조회, 상담 등 전 과정을 간소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Prime PB’와 연계한 온라인 프리미엄 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면 수준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증권, ASOCIO 어워드 수상

GPU인프라 구축 성과 인정

미래에셋증권은 아시아대양주정보산업기구(ASOCIO)가 주관하는 ‘ASOCIO 어워드 2025’에서 ‘AI 서비스 프로바이더 어워드’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SOCIO는 아시아·대양주 24개국 정보통신기술(ICT) 협회가 국가 간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1984년 설립한 국제 민간 기구다.

AI서비스프로바이더 어워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선도적 AI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기여도를 높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GPU) 기반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디지털 전환(DX)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클라이언트 퍼스트’(고객 우선)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정윤 기자

토권증권 도입안, 24일 법안소위서 첫 심사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병행

국회에 계류 중인 토권증권(STO) 법안들이 이달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권증권 도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토권증권도

입 법안은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병덕·조승래·강준현 의원이 차례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김재섭·김상훈 의원이 제안했다.

토권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 증권이다. 토권증권이라는 그릇이 생기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관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토권증권을 정의하고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두가지를 개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다른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는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토권증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주요 3당 모두 토권증권 법제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